『儒門事親』의 판본과 구성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1]
金基郁[1,*] · 朴炫局[1] · 徐志泳[1]

A Study of Construction and Edition on 『Yumunsachin(儒門事親)』

Kim Ki-wook[1,*] · Park Hyun-kuk[1] · Seo Ji-young[1]
[1]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Yumunsachin(儒門事親)』 is a very important work that contains everything of Jangjahwa(張子和)'s medical thought. The book was made into present form after the process of change several times. These days the printed book is consist of 10 classes and 15 volumes that combine several books. Original 『Yumunsachin(儒門事親)』 was the name of volume 1, 2, 3, 『Chibyeongbaekbang(治病百法)』 volume4, 5, 『Siphyeongsamnyo(十形三療)』 volume 6, 7, 8, 『Japgigumun(雜記九門)』 volume 9, 『Chwalyodo(撮要圖)』 volume 10, 『Chibyeongbaekbang(治病雜論)』 volume 11, 『Sambeop-yukmun(三法六門)』 volume 12, 『Samsoron(三消論)』 volume 13, 『Chibeoppillyo(治法心要)』 volume 14, and 『Sinhyomyeongbang(神效名方)』 volume 15.

『Yumunsachin(儒門事親)』 is a collection of a few books so, the literary style isn't uniform. The unconformity show that 『Yumunsachin(儒門事親)』 was not written by one person. The problem who is the writer of each volume remains controversial. But most scholars recognize that volume 1, 2, 3, original 『Yumunsachin(儒門事親)』 and was written by Jangjahwa(張子和), embellished by Majigi(麻知幾). Also, it is recognized that 『Samsoron(三消論)』 was collected by Majigi(麻知幾) and inserted by posterity, and that Sangjungmyeong(常仲明) and Nangi(欒企) who were Jang[張子和]'s disciples participated in compilation of 『Yumunsachin(儒門事親)』. Therefore, it is sure that the contents of the book express Jangjahwa(張子和)'s medical thought.

Key Words : Jangjahwa(張子和), Yumunsachin(儒門事親), Construction, Edition, Majigi(麻知幾), Sangjungmyeong(常仲明), Nangi(欒企)

Ⅰ. 緖 論

金元時代는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정치적인 혼란기라 할 수 있는 시기였다.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안정된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그 결과 熱性 전염병이 유행하는 등 戰禍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새로운 질병

* 교신저자 : 김기욱.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전화 : 054)770-2664. E-mail : kkw@dongguk.ac.kr

의 경향을 만들어 내어 그에 따른 새로운 의술이 요구되던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바로 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의학이론을 주장하는 의학 유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劉河間, 張子和(이하 張氏로 簡稱함), 李東垣, 朱丹溪의 金元四大家도 이 시기에 탄생하였다.

劉河間은 火熱病機를 중심[1]으로 하는 이론을 펼쳐 '主火派'라 불리며, 張子和는 邪氣의 제거를 목적으로 汗, 吐, 下의 三法을 이용한 攻邪思想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을 펼쳐 '攻邪學派', 또는 '攻下派'라 불린다. 李東垣은 土에 해당하는 脾胃를 중시하여 '補土派'라 불리며[2], 朱丹溪는 '陽有餘陰不足', '相火' 등의 이론[3]을 통한 滋陰降火法을 중시하여 '滋陰派'라 불린다.

금원사대가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서로 다른 의학적 이론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사상들이 후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의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남겼다. 이에 관하여 『四庫全書提要』에서는 "儒之門戶分於宋, 醫之門戶於金元"[4]이라 하여 그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또한 "河間之學與易水之學爭, 丹溪之學與宣和局方之學爭"[5]이라 하여 각 학파들 간의 이론적 대립을 통하여 의학이 발전하여 왔음을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금원사대가는 張仲景 이후 의학적 이론의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오던 동양 의학사에 새로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6].

이와 같이 張氏는 유하간, 이동원, 주단계와 함께 금원사대가로 일컬어지는 金代의 저명한 의학자로 의사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의학사상적 측면에서도 邪氣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강조하고, 汗, 吐, 下 三法을 이용한 攻邪療法의 창시자로서 '攻下派'로 불리며 독창적인 의술을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黃帝內經』, 『傷寒論』 등 고전의 의학 이론을 두루 섭렵하였고, 劉河間을 사숙하여 선인들의 사상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뛰어넘는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를 도출해 내었다. 따라서 논자는 張氏의 대표 저작인 『儒門事親』의 구성과 형성 과정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Ⅱ. 本 論

1. 『儒門事親』의 판본

1959년 『中醫圖書聯合目錄』에 실린 서적목록에 의하면 오늘날 약 20종이 넘는 『유문사친』의 판본이 존재하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7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최초 간행 시기는 金代에 해당하지만 이 판본은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最古의 판본은 1262년 간행된 元代의 판각본으로 金代 간본에 근원을 둔 것으로 일본에까지 전해졌으며 이는 張氏가 사망한 후 34년 뒤에 再版되어 현재 북경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후에도 다양한 판본들이 출판되었는데 관련된 문헌을 결합하여 『유문사친』의 판본을 연대별로 간단하게 개괄해 보기로 한다.

1) 金代 刻本

金刻本은 지금 볼 수 없지만 역사적으로 그것이 존재한 배경과 조건은 있었다. 張氏 생전에 全書가 대체로 탈고되었고, 『유문사친』이라는 제목을 붙인 의론 30편은 麻知幾의 윤색을 거쳐 탈고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최후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金史』에는 서명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其所著有六門三法之目"[7]이라 하였다.

張氏의 저작이 민간에 유전된 것에는 3가지 기원이 있었다. 첫째 張氏의 의명이 상당히 높아지자 이

1) 金基郁 外 1人. 素問玄機原病式의 病機理論에 關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7(3). pp.42-61.
2) 丁光迪 著. 東垣學術論文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1-24.
3) 金基郁 外 1人. 朱丹溪 醫學思想의 背景에 關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4). pp.1-14.
4) 王雲五 主持. 四庫全書總目·醫家類. 서울. 法仁文化社 影印本. 1964. p.856.
5) 蔡陸仙 編. 中國醫學匯海·卷8·金元之醫學. 서울. 成輔社. 1976. pp.76-77.
6) 宋隆燮 外 1人. 張從政의 生涯와 醫學思想. 慶熙大學校論文集. 1986. (9). p.320.
7) 崔國鋼 著. 儒門事親硏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25.

책이 마지막으로 탈고되지 않았지만, 『內經濕變五泄』처럼 상대적으로 독립된 卷次와 篇目이 형성되었다. '洞泄'의 의안에 "戴人乃示『內經』洞泄之說"[8]이라 기재된 것이 이를 말한다. 이 부분의 저작은 손으로 베끼거나 민간에서 사사로이 간각되어 張氏 생전에 이미 유전되었다. 張氏가 만년에 노병으로 시달려 심정이 울적하여 지은 시에서 "而今憔悴西山下, 更比文章不值錢"[9]이라 하여 그의 의서가 이미 전해져 읽혀졌지만 작자 본인에게 안부를 묻는 사람이 없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둘째 張氏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元兵이 중원을 침입하였는데, 관련된 사료에서 알 수 있다시피 麻氏는 난을 피해 郾城에서 確山으로 피난하였고, 중도에서 원고를 嵖岈山(오늘날 遂平縣 서쪽 30㎞ 떨어진 곳임)에 숨겨두었다. 金人 張願齋도 "惜其眞本爲征君藏於名由中, 不可復見"[10]이라 하였고, 李濂의 『醫史』에서도 "(此書)兵塵鴻洞, 藏諸查牙(卽嵖岈)空穴中"[11]이라 하였다. 그 결과 이 책의 전면적인 윤문과 탈고가 중단되어 앞 3권은 문체가 유창하고 준수하며 뒤 여러 권은 문체가 질박하게 된 차이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찍이 朱丹溪, 劉宗厚 등의 의가가 의문을 나타내어 뒤쪽 여러 권은 자화가 찬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 때문에 그 원고도 민간에 유입되어 간행되었다.

셋째 문하생 常仲明, 欒景先이 원래 이 책의 참여자로 張, 麻가 이어서 세상을 떠난 후에 두 사람 또한 자화의 遺著를 간행하는 임무를 계속하였다. 李濂의 『醫史』에서 "常仲明又摭其遺, 爲治法心要"[12]라 하여 이러한 점을 실증하였다. 元人 劉祁는 金末의 遺民으로 그의 책 『歸潛志』에 대해 史家들은 엄격하고 진실한 작품이라 칭하였다. 史書에서는 "金末喪亂之事猶足有征者"[13]라 하였다. 張氏는 그의 부친인 劉從益과 교류가 깊어 『歸潛志』에서 張氏가 "久居陳, 遊餘先子之門"[14]이라 하여 그 사람과 그의 책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三卷本 혹은 十四卷本의 『유문사친』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有三法六門之目"[15]을 언급하였다. 錢大聽의 『金史·藝文志』에서도 張氏의 저작에 『汗下吐法治病撮要』, 『秘錄奇方』, 『張氏經驗方』 등의 篇目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治病百法」, 「神效名方」, 『三法六門』의 다른 篇名이기도 하다. 篇目이 다르게 된 원인은 첫째 원고의 출처가 여럿이고, 둘째 마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원고를 총괄하는 사람이 없었고, 셋째 간각하는 사람이 몇 가지 편목을 회집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淸·陸心源의 『儀顧堂文集』을 근거로 고증하여 金刻本의 대체적인 모습이 현행본의 내용과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았다.

2) 元代刻本

현존하는 최초의 『유문사친』 간본은 元·中統 3년(1262) 간본이다. 이 판본은 3권으로 元·翰林直學士 河東人 高鳴의 「서문」이 있고 현재 北京大學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것이 간행된 것은 자화가 세상을 떠난지 34년이 지나서였다. 이 판본은 일본에 유전되어 丹波元簡의 『醫騰』에 그 개략적인 모습이 기술되어 있는데, "尋借元版於西京伊良子氏而抄之, 凡三卷, 首有中統年間高鳴序及金人張願齋引, 後有金人無名氏跋, 篇數與『紺珠經』所載符矣"[16]라 하였다.

願齋가 인용한 것에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元刻三卷本은 유전된 金本에서 기원하며, 그가 "異時有好事, 購得眞本, 重刊而行之"[17]라 하였는데, '重刊'이라 한 것은 이 이전에 三卷本의 『유문사친』이 유행하였

8)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98.
9) 萧國鋼 著. 儒門事親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25.
10)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卷15·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56.
11)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卷15·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57.
12)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卷15·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57.
13) 景仁文化社 編. 金史·列傳第五十三.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2526.
14)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卷15·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57.
15)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卷15·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57.
16) 丹波元簡 編. 醫騰·儒門事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883. p.25.
17)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

음을 말해주고 있다. '眞本'은 馬知幾가 윤색한 후에 『유문사친』이라는 서명을 붙인 3권의 탈고 본을 가리킨다. 물론 張氏의 다른 篇目도 단행본 형식으로 유전되었고 현재 그 면모를 볼 수 없을 따름이다.

3) 明代 刻本

明朝에서 전해 내려오는 중요한 3종류의 판본으로 『醫方類聚』본과 邵輔본 및 『醫統正脈』본이 있다. 간행된 연대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1) 『醫方類聚』輯錄本

『의방류취』는 朝鮮·金禮蒙이 明·永樂시기 이전의 의적 150여 종을 수집하여 분류하고 彙編하여 만들었다. 이 책에서 인용한 의적은 모두 明·永樂 연간(1403-1424)까지이며 1445년에 간행되었다. 원서는 朝鮮에서는 이미 산실되어 없어졌고 일본 丹波元堅이 家藏한 殘本을 근거로 증보하여 1861년에 중간한 것이 곧 『醫方類聚』 江戶學訓堂本이다. 이 책은 권질이 방대하여 집록한 것이 "宋元佚書亦復不少. 蓋篇帙之富, 爲現存醫籍之冠"[18]이다. 『유문사친』을 집록한 것이 총서의 면목으로 나타난다. 『儒門事親』, 「治病百法」, 『三法六門』, 「十形三療」, 『治法雜論』, 「雜記九門」, 「神效名方」 등 7目으로 각기 배열하였다.

『中國醫籍考』에서는 이를 근거하여 "原系于一部叢書"[19]라 보아 현행하는 15卷本의 『儒門事親』은 원래 여러 部의 단행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혹자는 『의방류취』가 "僅將叢書子目分列, 以示采摭之繁富"[20]하다고 의문을 품었는데, 이러한 목적에서 나왔다면 편집자가 「撮要도」, 「治法心要」의 目을 증보하여 배열하였을 것이며 번잡한 것을 간단하게 하여 도리어 子目을 감소시켜 나열할 수는 없다. 먼저 여러 종의 단행본이 있었고 나중에 회집하여 총서로 되었으며 다시 十四(十五)卷本의 통행본으로 전화되었다는 것이 『유문사친』이 刊刻되어 유행하고 발전된 규율에 부합된다.

일본 岡西爲人의 『宋以前醫籍考』의 고증에 의하면 『扁華訣』, 『病機論』 등의 내용(즉 오늘날 권14)은 明代에 비로소 『유문사친』에 들어갔는데, 전인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대략 元末明初에 『유문사친』 통행본의 초기 형태가 대체로 형성되었지만, 『의방류취』에서 편집한 것은 여전히 총서 형식의 간본이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 특징은 간각 연대가 빠를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아 중복된 간각으로 나타나는 오류를 피할 수 있었다. 이는 유일하게 현존하는 총서본의 면모를 나타낸 것이다.

(2) 邵輔(柏涯)本과 『醫統正脈』本

邵本은 明·嘉靖 20년(1541년)에 간행되었으며, 모두 14卷으로 張氏가 저작하지 않은 「삼소론」은 포함되지 않았다. 邵本은 元代 민간에서 유전된 간본에서 기원하였고 元·中統 3년의 三卷本이 아니며, 가장 늦게는 明代 초기임을 말해주고 있다. 張氏에 관한 저작을 모아 출판하고 『유문사친』이라는 서명으로 통합하여 총서의 판본이 현행 판본으로 변천되는 추세를 형성하게 되었다. 邵氏의 서문에 "惜其版久已失傳, 本多亥豕之訛, 因付儒醫聞忠, 校訂鋟梓"[21]라 하여 14권의 판본이 이미 유행하였고, 篇目에 혼란이 있었으며 字句에 착오가 있었음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明代 초기에 원래 도표였던 내용을 모두 문자로 고친 편찬 방법도 새로운 착오를 범하게 하였다. 邵輔十四卷本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존하는 비교적 빠른 판본을 대표하며 현행본의 대부분이 이 판본을 祖本으로 삼기 때문에 잘못된 곳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明·王肯堂은 萬曆 29년(1601년)에 고금의 44종 의학명저를 회집하여 간행하였는데, 이는 필독해야 하는 醫經, 脈學, 病機, 傷寒論의 저작 및 內, 外, 針灸, 醫方, 本草 등의 醫籍을 포함한 『醫統正脈』이라 명명한 대형 총서이다. 여기에 『유문사친』이 수록되어 있다. 이 총서의 주지에 대해 吳勉學은 총서의 서문에서 "醫有統有脈, 得其正脈, 而後可以接醫家之統"[22]이

18) 崔國鋼 著. 儒門事親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26.
19)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卷15·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58.
20) 姜春華. 張子和考. 上海中醫藥雜誌. 1985. (2).
21)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
22) 崔國鋼 著. 儒門事親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27.

라 하였다. 王氏는 明代의 저명한 의가로 그가 주관한 이 총서가 널리 유행하였고, 『醫統正脈』本의 「유문사친」15권(「삼소론」를 포함)은 邵本과 마찬가지로 현행본의 주요 저본이 되었으며, 현존하는 15권본을 대표한다. 그러나 여전히 邵輔本 계통에 속한다.

4) 淸代 刻本

淸朝의 판본은 『四庫全書』에 수록된 『유문사친』이 대표적이다. 간행은 1778년에 이루어 졌으며 邵本을 기초 삼은 15卷本이다. 全書는 斷句하지 않은 手抄本으로 편성된 후에 七閣에 나누어 소장되어 민간에서는 유통되지 않았다. 1991년에 上海古籍出版社가 이 판본을 영인하여 『四庫』本의 『유문사친』이 비로소 독자와 만나게 되었다. 편찬한 책이 여러 사람의 손에서 나왔고, 또한 범령과 시한에 쫓겨 분명한 오류를 개정하였지만 빠진 곳이 있으며 『總目提要』에는 마지기를 麻革으로 오인하였다. 麻革은 자가 信之이고 虞鄕 사람으로 文士이다. 그의 출생 연대가 마지기보다 늦고 1249년에 『重修證類本草』에 서문을 지었는데, 이때는 金이 멸망한지 20년이 되었고, 마지기가 세상을 떠난 지 17년이 되었다.

淸代에는 민간에서 간각한 것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은 淸·宣統 庚戌년(1910년)의 上海千頃堂 石印本이다. 이들은 현행본과 큰 차이가 없고 대부분 明·邵輔本을 祖本으로 삼거나 혹은 『醫統正脈』吳勉學 校本을 저본으로 삼아 간행하였다. 金人 張頤齋가 인용한 無名氏의 跋文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것은 張氏가 지은 詩 4수를 붙여 넣었다. 이러한 자료는 張氏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참고가치가 있다.

이밖에 地方志인 『南康府志』에 기재된 것에 의하면 淸代 江西 安義 사람 詹墀(號는 樵珊)가 『儒門事親集要』를 편찬하였는데 애석하게도 간행되지 못하였다. 서명에 나타난 것에 의하면 이는 일종의 節選本이 아닌가 한다.

국외 간본에는 일본 渡邊榮元安甫가 正德 辛卯년 8월에 邵本에 의거하여 간각한 것이 있다. 이 책에는 일본어 가나가다의 주석과 소량의 眉批가 붙어 있으며 日本 洛陽 松下睡鶴堂本이다. 正德은 江戶시대 櫻門天皇의 연호로 1711년에 正德으로 고쳤고, 幹支紀年이 바로 辛卯로 이때는 淸·康熙50년에 해당한다. 근년에 일부 학자는 '正德辛卯'를 明·正德으로 오인하였는데 이는 일본에서도 於支紀年이 통용되었음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 판본은 15권으로 근대 교주본의 對校本의 하나로 이용되었다.

5) 近代 刊刻本

民國시기의 비교적 좋은 간본은 曹炳章이 주관한 『中國醫學大成』 총서에 수록된 것이다. 이는 『醫統正脈』本을 저본으로 삼고, 일본 洛陽 松下睡鶴堂本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다. 曹氏는 친히 斷句하였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교감이 정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곳곳에 잘못 斷句한 부분이 있으며, 읽기가 매끄럽지 못하고 醫理에 지장이 나타난 부분도 있다. 1990년 上海科技出版社에서 『중국의학대성』을 중간할 때에 『유문사친』에 대해 邵本을 증가시키고 『四庫全書』本을 참고하여 교정하였다.

上海科技出版社가 1959년에 『中國醫學大成』大東版을 근거하고 日本 洛陽 松下睡鶴堂本을 참조하여 다시 교정하여 『유문사친』을 인쇄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통행하는 본의 대표적인 것이다.

河南科技出版社에서 1983년에 張海岑 등의 校注本을 출판하였다. 이 판본의 장점은 주석이 명백하고 알기 쉬우며 세로로 쓴 것을 가로로 써서 현대인의 읽는 습관에 부응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현대적인 문장부호로 고치고 관련된 단락 뒤에 按語와 評說을 덧붙여 張氏의 학술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결점은 교감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과 參校本과 旁校本의 선택이 너무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994년에 人民衛生出版社에서 『子和醫集』을 출판하였다. 이 판본은 『유문사친』과 常德이 찬한 『傷寒心鏡』을 合刊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張氏의 학술사상을 반영한 저작을 절충하고 새로운 校註를 만들었다. 주석부분이 비교적 잘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교감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많아 邵本 계통만 답습하여 失校와 誤校를 면하기 어려웠다.

근대에 간각하여 유행한 몇 개의 간본은 『四庫全書』本, 『醫學大成』本, 근대 인쇄본과 몇 종의 교주본을 포함하여 모두 明·邵輔本을 祖本으로 삼고 『醫統

正脈』本을 저본 혹은 校本으로 삼았다. 明刻本의 결점에 대해 任應秋는 "명대 사람이 책을 출판함에 있어서 여러 藩府에서 간각한 것이 비교적 좋은 것을 제외하고는 官刻, 私刻을 막론하고 모두 소홀히 한 것이 많고 탈루와 착오가 흔히 나타나는 것이 적지 않다"[23]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청대와 근대의 통행본과 교주본으로도 이어져 좋은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명대 초기를 경계로 그 이전에는 『유문사친』의 全書가 單刻本, 叢書本으로 간행되었다. 單刻本은 元·中統3년 三卷本이 대표적이고, 叢書本은 『醫方類聚』에서 집록한 본이 대표적이다. 그 이후 『유문사친』은 이미 全書의 서명이 되어 合刻本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十四卷本은 明·邵輔本이 대표적이고, 十五卷本은 『醫統正脈』本이 대표적이다. 근대에 간각된 교주본은 上海科技出版社가 1959년에 인쇄한 본이 대표적이다.

2. 『儒門事親』의 構成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유문사친』은 1210년에서 1228년, 즉 金代 衛紹王 大安 2년에서 金代 哀宗 正大5년 사이인 10여년에 걸쳐 씌여졌다[24]. 이 책은 초고에서부터 麻知幾의 윤색을 거쳐 완성이 되기까지 일정한 과정을 거쳐 점차적으로 형성되었다. 대부분의 내용과 틀은 麻知幾, 常仲明, 欒企 등의 협조 아래 張氏가 죽기 전에 이미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의론 30편은 마지기의 윤색을 거쳐 초고가 완성되었으나 정식으로 간행이 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張氏는 1228년에 세상을 떠났고 마지기는 1232년에 사망하여 두 사람의 사망년도 차이가 4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25].

현재 볼 수 있는 『유문사친』은 원래 하나의 저작이 아니며, 여러 저작들이 『유문사친』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편찬된 것이다. 따라서 전체 책을 살펴보면 문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유문사친』이라는 서명은 현재 『유문사친』의 권1, 2, 3의 내용에 붙여졌던 이름인데 이후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책들이 첨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적고』에서 "『醫統正脈』中所輯(『儒門事親』), 是書凡十四卷 …… 蓋所謂『儒門事親』, 止其前三卷 ……"[26]이라 한 것과 『歸潛志』에서 "西京伊良子氏藏元中統中高鳴刻本『儒門事親』亦三卷. 先子仍据朱好謙『心印紺珠經』訂其篇目, 述之所著『醫』, 今原其說, 据『醫方類聚』各証門所列, 可以詳核 …… "[27]이라 한 것에 따르면 후세의 『유문사친』은 14卷本으로 張氏의 원작인 『유문사친』 세 권을 기초로 8종 11권[28]이 첨가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유문사친』은 모두가 15卷本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 「三消論」 1권은 李濂의 『醫史』나 『醫籍考』 등의 문헌사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즉 현재의 15卷本은 14卷本에 「三消論」 1권을 보탠 것이다. 이상을 통해 『유문사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3卷本, 14卷本, 15卷本의 세 가지 과정을 거쳤으며, 3卷本은 단독으로 재차 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9종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문사친』을 가리켜 원래 총서의 일부라고 이해하기도 한다.

현재 볼 수 있는 『유문사친』은 張氏의 학술사상과 경험이 집중 반영되어있는 대표작으로 앞 3권은 이론의 설명과 해설이 위주이고, 제4권에서 9권까지는 증과 병에 따른 치법을 논한 경험을, 제10권과 11권은 運氣發病과 이와 유관한 질병의 치료를 주로 논하였고, 제12권은 張氏와 유관한 방제가 열거되어 있으며, 제13권은 劉河間의 「三消論」이 수록되어 있고, 제14권은 診法要訣, 병인, 병기와 치료원칙을 담고 있고, 제15권에는 外科, 五官, 少兒科, 婦科 및 奇難雜症의 証治經驗方이 수집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

23) 張元素 原著. 任應秋 点校. 醫學啓源·敍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8.

24) 姜春華. 張子和考. 上海中醫藥雜誌. 1985. (2).

25) 蕭國鋼 著. 儒門事親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11.

26)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卷15·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58.

27) 徐江雁, 許振國 上編. 張子和醫學全書·張子和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5.

28) 治病百法 2권. 十形三療 3권. 雜記九門 1권. 撮要圖 1권. 治法雜論 1권. 三法六門 1권. 治法心要 1권. 神效名方 1권이 8종 11권의 구성 내용이다.

략 몇 단계의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1) 張子和의 自撰내용과 自撰에 대한 논란

『유문사친』의 앞 3권이 바로 『유문사친』 원서의 내용으로 이 부분은 張氏가 직접 저작하였고 마지기의 윤색을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3권은 문장이 훌륭할 뿐만 아니라 이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名目은 번잡하지만 큰 주제는 攻法으로 이는 全書의 중심이라 할 수 있으며 張氏의 학술사상이 집중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 부분은 30편의 편제로 이루어져 있다. 14卷本이 만들어지면서 앞 3권의 이름이던 『유문사친』이 全書의 이름이 되었지만, 원래 『유문사친』이라는 서명은 앞 3권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 30편의 의론을 통해 張氏의 주요 학술사상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汗, 吐, 下의 三法 및 攻邪理論이 주창되었다.

30편의 의론 중 1~27편은 장자화의 자찬에 의한 것이라는 설이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에 이 앞 3권의 30편 중 끝부분의 세 편(즉 「蟲豔之生濕熱爲主訣」, 「補論」, 「水解」에 해당함)은 대부분 마지기의 윤색을 거친 것으로 현재까지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남아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張氏가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주장을 증명할 만한 유력한 사료들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이 남아있는 이 세 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 「蟲豔之生濕熱爲主訣」

이 편의 끝 부분에 "憑上張子政用此法下蟲數百"[29]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학자들은 '憑上張子, 政用此法, 下蟲數百'으로 標點하였다. 따라서 張氏의 자필이라면 자신을 이렇게 칭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작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憑上張子政, 用此法'으로 표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張子正'이 완전한 이름이므로 말허리를 잘라 '張子'라고만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政用此法' 구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張子正은 張氏의 兄으로 이미 고증이 되었으며, 두 형제가 모두 가업을 이어 의사의 길을 걸었고 子正 또한 유명한 의사였다. '憑上'이라는 지명도 張氏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張氏가 太醫職에서 물러나 陳州로 돌아와 『유문사친』을 저술하던 때는 이미 60세가 넘었고, 권15·2에서 "近與子正話及, 方得其傳"[30]이라 하여 張子正 역시 이 지역에 있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 편의 내용은 "先令飢甚, 次以檳榔, 雷丸爲引, 予別下蟲藥, 大下十數行, 可以擡而空"[31]하는 독특한 驅蟲之法을 소개한 것이다. 蛆蟲에 대해 '木香檳榔散'으로 살충한 방은 권4의 「惡瘡49」와 권12에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蛆蟲을 제거하는 약이 모두 처방 속에 있으니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다."[32]라 하였다. '方中'이라는 것은 권12의 泄下劑와 권15의 殺蟲諸方을 가리킨다. 따라서 만약 이 문장이 張氏가 쓴 것이 아니라면 이 구절은 과녁을 겨냥하지 않고 화살을 쏘는 격이 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편은 張氏가 저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張子正이 張氏의 殺蟲方法을 운용하였다는 문장이 들어 있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썼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이 부분도 마지기의 최종적인 윤색을 거쳤음이 틀림없다.

(2) 「補論」

이 편의 첫 문단에서 張氏가 저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予幼歲留心于醫, 而未嘗見其達者. 貞祐間, 自沃來河之南, 至頓丘, 而從遊張君仲傑之縣舍, 得遇太醫張子和先生, 誨仲傑以醫而及於遊公君寶暨不肖, 猗歟大哉"[33]라 한 것에서 '不肖'라는 것은 이 본문의 저자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비록 姓氏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관련된 문헌을 종합해보면, 이는 張氏와 마지기의 첫 만남을 기록한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29)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3.

30)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1.

31)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62-63.

32) 具炳壽 外 1人 譯. 儒門事親.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p.193. "別有驅蛔之藥, 皆具方中, 此不具陳也"

33)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3.

30편의 의론은 張氏와 마지기 두 사람의 작품으로 만약 그 중 張氏의 원저가 아닌 문장이 있다면 마땅히 먼저 마지기의 문장으로 추측해야 할 것이다.

(3) 「水解」

이편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張氏의 저작이 아니고 마지기의 저작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중요한 증거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편의 마지막에 "乃智子和之於醫, 觸一事一物皆成治法 …… 後之用水者, 當以子和之言爲制"[34]라는 구절이 있는데 만약 子和가 쓴 것이라면 자신의 姓과 字를 언급한 것은 부자연스럽다.

둘째, 李時珍이 『本草綱目』에서 「水解」편의 문장을 인용하면서 "馬知幾水解云"[35]이라 하여, 마지기를 직접 언급하였다.

셋째, 『歸潛志』에서 醫論 30편은 張氏의 大義에서 나왔지만 마지기가 문장을 다듬었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張氏가 지은 것이 아니라 마지기에 의해 卷末에 덧붙여진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水解」는 張氏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定說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水解」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서 張氏가 저술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이유를 들어, 이편이 馬知幾나 혹은 다른 사람의 저술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다. 즉, 이 단서들을 통해 이편이 馬知幾나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술이 아니라 장씨에 의해 씌여졌다는 것을 주장 할 수 있다.

여기에서 '余', '予' 등 일인칭을 써서 서술하고 있는데, 만약 마지기의 저작이라면 "九疇聞之曰 : 精乎哉, 論也!"[36]라고 자신의 성과 이름을 스스로 부르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어 어조에 맞지 않고, 문장을 쓰는 관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余', '予'와 '九疇'는 당연히 동일 인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本草綱目』 卷五 '井泉水'에서 "馬知幾水解云"[37]이라 하여, 「水解」 全篇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 곳에서 문자의 불일치가 발견된다. 예를 들면 "余昔訪靈臺問太史"[38]는 "九疇昔訪靈臺太史"로 바뀌었고, "予易之以長川之急流煎前藥"[39]은 "張子和易之以長川之急流"로 바뀌었다. 또한 "九疇聞之曰 : 精乎哉論也 ……"[40]이하 84자는 모두 삭제되고 "此正與『靈樞經』治不瞑半夏湯, 用千里流水同意味"[41]로 바뀌어져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어떤 문장에서는 일인칭 대명사 대신에 마지기를 넣고 어떤 문장에서는 張氏를 넣어 이 두 부분이 서로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李時珍의 글은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고친 것으로 문장의 확실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주장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에서 작자를 분명하게 파악하는 관건은 원문에 혼입된 注文을 분리해 내는 것이다. "乃智子和之與醫 …… 當以子和之言爲制"[42]의 내용은 張氏의 원문이 아니며, '精乎哉論也' 또한 마지기 자신을 자랑하는 착오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해석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水解」에서 張氏가 지은 부분은 "余昔訪靈臺問太史"에서부터 "取前藥而沸之, 一飮立瘳"까지와 맨 마지막 "余于是乎作水解" 구절로 이것이 原本의 全文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43]. 그렇게 되면 篇末의 '九疇聞之曰 : 精乎哉論也 …… 當以子和之言爲制' 99자는 「水解」에 대한 마지기의 評注에 해당되는 것

34)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5.
35) 李時珍 著. 本草綱目·卷5·水部.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284.
36)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5.
37) 李時珍 著. 本草綱目·卷5·水部.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284.
38)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4.
39)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5.
40)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5.
41)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5.
42)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5.
43) 具炳壽 外 1人 譯. 儒門事親.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pp.201-202.

이다.

현재 통용되는 판본은 일본의 洛陽松下睡鶴軒本에 근거하여 인쇄한 '上海醫學科技出版社 59年版'으로 '九疇'가 '元疇'로 잘못 인쇄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元疇'는 知幾가 아니므로 이 문장을 麻氏가 쓴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마지기의 99자 評注는 張氏의 「水解」에 대해 말한 것이다. 그는 張氏가 물의 특질과 성능을 깊이 터득하고 『내경』의 뜻을 밝히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물을 사용한 것은 가히 후세 사람들이 본받을 만하다고 찬양하였다. 따라서 "當以子和之言爲制"[44]이라 하였다. '子和之言'은 「水解」에서 張氏가 물은 한 가지 물질이지만 "性從地變, 質與物遷"[45]이라 하여 임상에서 각기 다른 효능이 있다고 한 학술관점을 말한다. 麻氏가 "乃智子和之於醫, 觸一事一物皆成治法"[46]이라 한 말은 「水解」에서 張氏가 小便閉를 치료하는데 長川急流水로 약을 달인 치법을 가리킨 것이다. 마지기의 이러한 말들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한 말이 아니라면, 「水解」는 張氏가 지은 것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麻氏나 다른 사람의 저작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 된다.

즉 麻氏의 글은 99자 끝에 첨가된 評注일 따름이다. 이 주석이 후인들에게 正文으로 오인되어 「水解」의 저자가 불분명하게 되고 文理에 맞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水解」의 작자는 張氏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2) 麻知幾, 常仲明 등이 정리한 내용

이는 全書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醫史』에서 "張子和, 麻知幾, 常仲明輩, 日遊隱水之上, 申明奧義, 辨析玄理, 遂以平日聞見及嘗試之效, 輯爲一書, 名之曰『儒門事親』 …… 是書凡十四卷, 蓋子和草創之, 知幾潤色之 …… "[47]라 하였고, 『歸潛志』에서는 "張子和……麻知幾與之善, 使子和論說其術, 因爲文之……"[48], "是書一成, 一法一論, 其大義皆子和發之, 至於博之以文, 則徵君所補能辭焉"[49]이라 하였다.

위의 기록들에 따르면 이 내용들이 張氏의 손에서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張氏가 언급한 것이거나 張氏 학설의 영향을 받은 것임은 분명하다. 학술적 내용과 실제 임상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張氏가 가르친 이론의 기록이거나 張氏가 실천했던 임상기록 또는 張氏가 운용하던 방약이며, 수집되어 대대로 내려오던 방약 등이 포함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1) 강의 내용에 대한 기록

권4, 권5, 권10, 권11의 내용은 이론에 대한 기술이 많으며 문장이 비교적 정미하고 문체가 대체로 통일되어 있으며, 古典에 근거하여 經典을 인용한 것이 적지 않다. 원문이 인용된 곳은 각 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한사람의 저술로는 보이지 않는다. 권5에는 구절 첫머리에 '夫'자를 많이 사용하였고, 권11에는 '凡'자를 다용했으며 구체적 임상 사례를 다룬 내용은 적다. 이는 강의 내용에 대한 기록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① 「治病百法」과 「治病雜論」

「治病百法」은 모두 두 권으로 현재 통용되는 板本에서 권4, 권5에 해당하며 「治病雜論」은 한 권으로 권11에 해당한다. 양자의 내용은 서로 유사하므로 그 구성과 내용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치병백법」은 內, 婦人, 外, 小兒, 五官, 皮膚科의 諸症에 대해 100條의 증치를 열거하였기 때문에 「치병백법」이라 명명하였다. 外感六淫 7종, 內科雜病 29종, 頭目五官科질병 9종, 皮·外·瘡瘍疹瘤 9종, 跌仆·蟲傷·金創 7종, 부인과 질환 19종, 소아과 질병 20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분류에 대해 치법과 방약이 제시되어 있는데, 치법은 汗, 吐, 下의 三法이 위주가 되고 있고 砭刺瀉血 및 導引按摩 등을 병행하였으며, 禁咒과 單方 驗方이 덧붙여져 있다.

44)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5.
45)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卷3·水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5.
46)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5.
47)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張子和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95~196.
48)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張子和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6.
49)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張子和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6.

方藥運用의 예에서는 치료단계의 규율을 찾을 수 있다. 또한 攻邪를 우선하고 食療를 후에 실시하였으며, 환자의 체질적 요인에 따른 胃氣의 강약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 내용면에서 張氏의 攻邪이론이 임상에서 운용되는 원칙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고 脈証의 기록과 病機, 치료의 원리 등은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

「치병잡론」은 諸病, 부인, 소아 3분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風, 寒, 火, 內傷, 外傷 등의 門이 배열되어 있는데, 모두 15門 103段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은 「치병백법」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양자의 문체를 살펴보면 「치병백법」은 이미 정리 작업을 거쳐 編次가 세심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치병잡론」은 내용은 유사하나 문체가 비교적 소박하다.

「치병백법」과 「치병잡론」 상호간에 서로 수록되지 않은 내용을 살펴보면 양자의 편찬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치병백법」은 의가들이 질병에 대한 치료를 논할 때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 外感六淫과 傷寒治法을 먼저 서술하였는데, 1~6條의 문체는 뒷부분의 문체와 일치하지 않아 새로이 추가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치병잡론」에는 이 여섯 條가 없고 제1·14段에서 六淫, 傷寒, 溫疫 등 四時不正之氣의 치법을 논하고 있는데, 「치병백법」에 外感病에 대해 새로 추가시킨 내용이 있으므로 이 단(「치병잡론」의 제1·14단)은 싣지 않았다. 「치병백법」 가운데 '咒法' 7조가 기재되어 있는데 「치병잡론」 제63, 69단과 그 증치 내용이 일치한다.

그러나 「치병잡론」에는 咒法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내용이 「치병백법」에 새로 추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치병잡론」에는 없는 厥, 諸積不化, 喀血嗽血 등의 병증 9조가 「치병백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잡병 가운데 중요한 병증 들이다. 비록 「치병잡론」의 '二陽病'조에서 喀血, 嗽血에 대해 논하고는 있지만 그 주증은 虛勞로 出血症의 논치를 강조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그 내용을 상호 분석해보면 「치병잡론」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치병백법」에서 새로 덧붙인 것이며, 「치병백법」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대부분 내용이 중복되고 번잡하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었다. 따라서 「치병백법」은 「치병잡론」의 기초 위에서 첨삭 과정을 거친 후 편차를 새로이 정리하여 완성된 이차적인 문헌이며 「치병잡론」보다 늦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撮要圖」

「촬요도」는 현재 통용되는 板本에서 권10에 해당한다. 여러 板本을 거치면서 내용면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그 모양은 변화되었다. 『醫方類聚』의 기록에 의하면 원래의 책에는 「難素撮要究治識病用藥圖」, 「天地六位臟象圖」, 「撮要圖」, 「六門病證藥方圖」, 「五泄圖」, 「金匱十全之法圖」 등 6종의 도표가 있었다. 별도로 「金匱十全五泄法後論」이라는 後論 한 편이 더해져 있는데 이 論의 끝에 "以上之圖, 校改爲篇法"[50]이라는 말이 있으나, 『의방유취』에는 없으므로 명대 초에 책을 교정하여 간행한 사람이 注를 붙여 놓은 것으로 여겨진다. 명대에 판본이 만들어질 당시 독서 습관을 따라 도표를 문자 형식으로 바꾸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책을 읽는데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글자가 섞이고 배열이 잘못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도표의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측면이 있다.

㉠ 「難素撮要究治識病用藥圖」와 「天地六位臟象圖」

이 두 가지는 현재 통용되는 판본에서도 도표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三消論」의 錦溪野老 「跋」에서 龐知幾는 "止取三消論, 於卷首增寫六位臟象圖, 其餘未遑潤色, 郎付友人穆子昭"[51]라 하여, 마지기가 「삼소론」을 취한 후 그 卷頭에 六位臟象圖를 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天地六位臟象圖」의 표 윗부분에 "此論原無此圖, 添之"[52]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龐氏가 적어놓은 것임이 틀림없다.

도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삼소론」의 첫머리에 "『易』言天地, 自太虛至黃泉有六位. 『內經』言人之身, 自

50)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23.
51)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7.
52)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5.

頭至是赤有六位. …… 不知此者, 不可與論人之病矣"[53]라 한 내용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이 도표가 增寫되어 덧붙여진 것은 이러한 유사성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增寫'는 보충하여 베껴 쓴 것을 의미하므로 麻氏가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마지기에 의해 『천지육위장상도』가 卷頭에 첨가된 형태는 穆子昭가 「삼소론」을 간행할 당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의방류취』에서는 이 도표가 河間의 작품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도표를 모두 「雜記九門」에 귀속시켰다. 후에 穆子昭의 「삼소론」은 전란에 불타버렸으나, 이 판본은 사람들의 초사를 거쳐 다시 조판되어 明初에 『유문사친』 권13에 포함되게 된다. 이 판본이 만들어질 당시 「삼소론」의 문체가 일치하지 않아, 이 두 도표는 전체가 도표 계통으로 구성된 「촬요도」에 귀속되어 권10의 내용의 일부가 된 것으로 보인다.

明板本에서 「촬요도」 등 네 개의 도표를 문장 형식으로 바꿀 때 이 두 도표는 바꾸지 않아 원래 「촬요도」 권의 범위 안에 있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천지육위장상도」의 형식과 내용은 張元素의 『醫學啓源』上卷 첫 편의 도표와 서로 같고 '此論原無此圖, 添之'라는 구절과 몇몇 글자만이 차이가 난다. 『金史』나 『醫學啓源』 元刻本의 蘭泉老人 張吉甫의 서문에 나타나는 내용에 따르면 『의학계원』은 張元素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원소와 유완소는 동시대 사람으로 張氏보다 좀 더 이른 세대이나 『의학계원』은 元素의 제자인 李杲가 간행한 것으로 이고는 張氏보다 약간 늦은 시기의 사람이다. 따라서 장원소가 이 책을 저작한 시기가 마지기보다 이르므로 원소가 마지기의 것을 베껴 쓸 수는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지기가 살았던 시기는 아직 『의학계원』이 간행되기 전이므로 마지기 또한 『의학계원』의 것을 베껴 쓴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도표는 元素나 麻知幾가 지은 것이 아니라 의학 계몽을 위해 유통되던 자료로 宋金 시기에 이미 널리 퍼져있었던 것이라 여겨지며, 이를 장원소는 『의학계원』에 수입하였고 마지기는 「삼소론」 앞에 덧붙여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 「撮要圖」

이 도표의 내용은 현재 통용되는 板本의 권10 '外有風寒暑濕'에서부터 '小指不用, 爲此諸病'까지의 내용에 해당한다.[54] 이는 病因, 病症分類, 六氣 主病과 치료원칙, 12經脈 主病 등 한의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포괄하고 있다. 앞의 두 도표와 마찬가지로 宋金시기에 의학을 가르치는 교재로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四因'은 『素問』「至眞要大論」의 王冰 注로부터 나왔고, '五鬱主病'은 『素問』「六元正紀大論」 중 '五鬱之發'을 귀납시킨 것이다, '六氣主病'은 『医学啓源』의 '六氣主治法要'와 유사하여 단지 注文을 귀류시킨 것이 불과하고, '十二經主病'은 『靈樞』「經脈」에서 요점을 모은 것이다. 이 부분의 내용은 간략히 그 요점이 정리되어 있고 또한 의학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도표의 구성 또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기억하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撮要圖」라 이름 지어졌다.

㉢ 「六門病證藥方圖」

이 그림의 내용은 권10 '風治法'에서 '謂寒藥攻其裏'까지에 해당한다.[55] 『의방류취』에 수록된 도표와 비교해보면 누락된 것이 비교적 많다. 이 도표는 方을 선택하거나 익히고 기억하는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選方은 권12의 내용과 같으며 학술사상을 분석해보면, 張氏의 사상을 담고 있어 張氏가 설계한 것으로 여겨진다.

㉣ 「五泄圖」와 「金匱十全之法圖」

이 두 그림은 원래 도표 형식으로 되어있던 것이므로 그 내용이 비교적 간략하다. 五泄이 15가지 泄瀉로 전변되는 내용과 그 변증에 있어서의 간략한 병

53)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1.

54)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15-120.

55)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20-121.

기, 치법, 방약이 열거되어 있다. 구체적인 논술은 「後論」에 들어있다.

㉤ 「金匱十全五泄法後論」

이는 앞의 「오설도」와 「금궤십전지법도」에 대한 해설로 주로 五泄의 병기와 전변, 즉 脈辨生死, 諸泄病機, 辨證 및 치료원칙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소화기계통 질환의 치법에 대한 張氏의 중요한 학술논문이라 할 수 있다. 五泄十五變(원래는 二十五變으로 되어 있음)은 소화기 계통질환의 전변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비록 '泄'을 중심으로 논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霍亂, 腫蠱, 腫脹 등 脾胃, 肝膽 등의 장부병변과도 관련이 있으며 痔核, 腸風, 癬毒, 便血, 脫肛 등 하부 소화기 질병들도 포괄하고 있다.

『難經』의 五泄이론을 결합하여 소화기 질환의 주요 원인을 '濕邪'로 인식하고, 이 濕邪와 기타 五邪가 서로 상합하여 침입하면 '五泄'이 되고, '五泄'이 그치지 않으면 15變으로 진행되므로 "若無濕則終不成疾"[56]이라 하였다.

치료에 있어서는 汗, 吐, 下, 滲泄하는 '通'과 和解, 溫中, 酸澀하는 '塞'과의 변증관계를 확실히 할 것을 주장하는 학술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篇末에 "因作五泄圖, 撫『難』,『素』本意. 書錄於上, 刊而行之, 就有望於後之君子. 戴人張子和述"[57]이라 한 내용이 있다. 이것은 「五泄圖」, 「金匱十全之法圖」 및 「後論」이 모두 張氏가 지은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오설도』는 또한 「內經濕變五泄圖」라고도 하는데, 권6·85 劉德源 醫案에서 "戴人乃出示『內經』洞泄之說"[58]이라 한 것이 즉 이 「오설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3부분(두개의 圖와 後論)은 「十形三療」보다 이른 시기에 독립적으로 저작된 張氏의 초기 작품이며, 그 당시에 이미 필사본이나 단행본이 간행되어 유통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張氏의 임상경험에 대한 기록

권6, 권7, 권8, 권9의 전반 부분으로 그 내용은 구체적 진료기록과 시간, 장소, 성명, 연령, 병의 상태, 치료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인 진단치료의 大法이 담겨 있다. 문장의 표현형식과 내용, 분량 및 앞뒤로 나오는 '麻先生'과 張氏의 제자인 '常仲明'과 '趙君玉' 등의 이름의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의안의 기록이 한 사람이 아닌 몇 명에 의해 씌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의안의 내용들은 張氏의 일생에 관하여 고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① 「十形三療」

六淫인 風, 寒, 暑, 濕, 燥, 火 六形에 內傷, 外傷, 內積, 外積 四形이 더해져 '十形'이 되고 이로써 病因, 病機를 개괄하고 질병을 분류하였다. 치료에 있어서는 汗, 吐, 下의 三法을 위주로 하여 이것이 '三療'가 되므로 「十形三療」라는 書名이 붙여졌다. 현재 통용되는 板本의 권6, 7, 8에 해당한다. 병증 139종, 醫案 162례를 수록하고 있어 「십형삼료」는 실질적으로 한 질의 醫案選集이라 할 수 있다. 의안은 대부분 張氏가 攻邪三法을 운용한 임상치료 경험사례이며 張氏의 友人인 마지기와 조군옥 및 門人인 常德, 欒企 등이 張氏의 치법에 의거하여 치료를 경험한 醫案이 약간 덧붙여져 있다.

그 중 汗, 吐, 下 三法을 함께 사용한 것이 17례, 汗吐가 함께 사용된 것이 2례, 吐下가 병용된 것이 43례, 汗下가 함께 사용된 것이 3례, '汗法'만 사용된 것이 9례, '下法'이 30례, '吐法'이 22례이다. 砭刺瀉血療法을 사용한 것이 15례, 鍼刺치료가 5례, 기타 방법 혹은 심리요법이 사용된 것이 30례이다.

의안의 문체를 살펴보면 편찬자가 오래전에 치험한 것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張氏가 만년에 치험한 사실적인 기록이다. 이 기록들은 『유문사친』30편에서 제창한 張氏의 학술사상이 실제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또한 「치병백법」에서 열거한 치법이 구체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의안은 문장이 소박하고 기록이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정확하다.

56)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23.
57)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23.
58)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98.

「십형삼료」에서 張氏와 관련된 부분 모두 '戴人'이라 칭하고 있으므로 張氏가 직접 지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여러 차례 麻知幾를 언급할 때에도 '麻先生'이라 칭하고 있으므로 麻氏가 편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다만 마지막 의안인 '痔'에서 "麻先生偶記而書之"[59]라는 구절은 편찬자가 마지기가 기술한 내용을 인용하여 기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십형삼료」 가운데 편찬자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滑泄幹嘔' 의안은 마지기의 처가 7월에 滑泄을 앓았던 것을 기록한 것인데, 이 의안을 기록한 사람이 먼저 진찰을 하고 "余欲瀉其火, 髒腑已滑數日矣, 欲以溫劑止利, 又奈上焦已熱, 實不得其法"[60]이라 하였다. 바로 그때 張氏는 더위를 피해 諸葛寺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사람을 급히 보내 왕진을 청하였다. 작자는 "因檢劉河間方, 惟益元散正對此證 …… 以青黛, 薄荷末調二升, 置之枕右, 使作數次服之"[61]이라 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증상이 완화된 후에 "及戴人至, 余告之已解. 戴人曰 : 益元固宜, 此是少陽證也, 能使人寒熱偏劇 …… 何不以黃連解毒湯服之 …… 便以當歸, 芍藥, 以解毒湯中數味, 服之大瘥矣."[62]라 하였다. 이 의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작자가 張氏를 대하는 태도에서 제자의 예가 드러나 보이므로 張氏의 제자일 것이라고 그 신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常, 欒 두 사람은 앞뒤로 張氏의 제자가 되었으며 만년에 이르러서도 함께 그를 따랐는데 仲明이 張氏의 제자가 된 시기가 비교적 더 빨랐고 의술도 숙련되어 있어 1217년에는 이미 『張子和傷寒醫鏡』을 정리하여 간행하였다. 仲明은 비록 문하생임을 자처하였지만 실제로는 친구에 가까웠는데 이는 李濂의 『醫史』에 마지기와 함께 "麻知幾, 常仲明輩"[63]라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欒氏는 張氏를 따르게 된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 醫理에 생소하였고[64] 「雜記九門」에서 "門人欒景先"[65]이라 한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제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의안에서 '余'는 常仲明일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고 하겠다.

常, 欒은 子和의 제자로 오랜 기간 그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목격한 것을 醫案으로 기록하여 소장하고 있었으며, 의안을 모아 책으로 만들 때 麻知幾, 趙君玉 등의 회상과 기록도 수집되었다. 바로 이러한 자료들이 「十形三療」의 기초가 되었다. 책에서 언급한 두 사람의 행적을 일인칭으로 언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안에서 각자의 성명을 직접 나타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牙痛'의 의안에서 欒景先을 그대로 쓰고, '因風鼻塞' 등의 의안에서는 常仲明이라 기재하였는데, 이는 글을 쓰는 체례에 있어서 통용되는 방식이다. '滑泄幹嘔'에서 나타나는 '余'는 「十形三療」가 성서된 후에 윤색과 원고의 통일을 거치지 않아 생긴 누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常, 欒이 「十形三療」의 공동 편찬자이며 그 중 常仲明이 주요 편찬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十形三療」의 편찬 시기는 대체로 張氏가 太醫를 사임하고 陳州로 돌아 온 때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十形三療」의 의안들이 대부분 이 시기 전후에 이루어졌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편찬 시기를 증명하는 내용들이 「十形三療」에 기록되어 있다. 「十形三療」에 舟車丸이 51번, 淩川散이 22번 사용되었는데 이 처방은 「治病百法」이나 『三法六門』에는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이 책이 완성된 시기와 다른 책들의 완성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目赤' 醫案의 '戊子'[66]는 1228년을 가리키며 張氏는 바로 이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張氏가 사망한 다음에 정리되어 완성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권의 醫案에서 張氏 스스로 치료한 의

59)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0.
60)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87.
61)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87.
62)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87.
63)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研究中心 編纂. 醫史·張從政傳·卷5. 北京. 黃山書社. 2005. p.35.
64)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11-112. "景先初學, 其人不吐, 反下走一行"의 문장에서 당시 欒景先이 의술에 서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5)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1.
66)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88.

안인 '感風寒'에서 "戴人時年六十一"[67]이라 하였으며, 지명이 모두 瀙水 부근이고 縣邑도 陳州 주위에 있어 張氏가 만년에 살던 곳과 부합한다. 이로써 「十形三療」가 탈고된 것이 「治病百法」, 『治法雜論』, 『三法六門』보다 늦을 뿐만 아니라 麻知幾가 윤색하여 탈고한 『儒門事親』보다도 늦음을 알 수 있다. 원고를 모은 대체적인 시한은 대략 欒景先이 자화에게 의학을 배우고부터 자화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여 년 안이고 성서된 것은 張氏와 마지기가 이어서 세상을 떠난 후일 가능성이 높다.

② 「雜記九門」

「雜記九門」은 현존본 권9에 해당하며 卷頭에 '雜記九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이는 원래의 총서본이 남긴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부분의 필치와 호칭은 「十形三療」와 유사하여 常, 欒 등이 張氏의 의론과 의안을 모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醫話체례의 초기 형태이며 한의학에서 현존하는 비교적 빠른 '醫話'이다. 이 권의 편차는 여러 板本을 거치면서 그 목차가 뒤섞여 분명하지 않아 제목은 九門이지만 실제로는 18조로 이루어져 있다.

㉮ 誤中湧法 : 嗽 疥, 赤目 感風寒
㉯ 誤中寒涼 : 經閉 下血 痢
㉰ 臨變不惑 : 湧法 湧嗽
㉱ 當禁不禁病愈後犯禁而死
㉲ 不忌反忌不忌口得愈 不可忌口
㉳ 高技常孤
㉴ 群言難正 : 謗吐 謗三法 謗歧藥
㉵ 病人負德, 愈後吝財
㉶ 同類妒才, 群口誣戴人

이렇게 정리하면 두서가 분명하고 歸類가 일치하며 또한 제목인 '九門'의 숫자와 부합한다.

『의방류취』의 기록에 의하면 「잡기구문」에 「촬요도」의 모든 내용과 「치법심요」 중 '扁華生死要訣', '百病生死要訣'(이 두 요결은 『의방류취』에서 「치병백법」에 들어있음)을 제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편찬에 있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이 저작들이 원래는 한질로 이루어져 단독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의방류취』에 수록될 때에는 「잡기구문」을 篇題로 삼았다. 다른 하나는 『의방류취』에 기재된 것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기록을 수집한 사람이 이를 새롭게 분류하고 편제를 바꾸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소론」은 「잡기구문」에 속해 있는데 「삼소론」의 '方論' 부분은 「십형삼료」에 집어넣었으며, 원래 「잡기구문」 속에 있던 '當禁不禁'의 '陽夏韓氏' 의안을 「십형삼료」에 삽입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이 권이 정리 편집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3) 張氏의 방제 수집

張氏가 언급한 방제는 거의 모두 권12에 수집되어 있다. 3法 6門으로 분류하고 형식을 통일시켜 方名과 藥物, 藥量, 用法을 기록하였다. 그 중 古方에서 인용을 하면서도 바꾸거나 삭제하여 기재한 것이 있으며 약량과 복용법은 모두 상황에 맞게 대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張氏가 증세를 살펴 그에 맞게 대처하였으며 옛것을 따르되 옛것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① 「三法六門」

「三法六門」은 현재 板本의 권12에 해당하며, 171가지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 吐, 汗, 下方이 '三法'이 되고, 風, 寒, 暑, 濕, 燥, 火方이 '六門'이 되며 內를 겸치하고 外를 겸치하여 調治하는 등의 類方을 부기하였다. 劉祁의 『歸潛志』와 『醫史』에서 특히 張氏의 저작을 "有三法六門之目"[68]이라 언급한 것은 이 부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張氏가 '三邪病機'이론과 '攻邪三法'의 학술적 관점을 방제의 조성과 운용에 직접 활용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질병에 대한 通治方에 속하며 張氏가 지은 것으로 보인다.

(4) 古人들의 驗方 수집

권15는 「世傳神效名方」이다. 모두 18종으로 內科, 外科, 五官, 婦人科, 小兒科, 奇難雜症이 속해있으며,

67)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01.

68) 嘉國鋼 著. 儒門事親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21.

'汗法', '吐法', '下法' 三法과 관련된 방약이 많다. 권12와 비교하면 문장체계가 그다지 통일되어 있지 않고 方名이 조금 부족하다. 아마 張氏가 임상과정에서 常仲明 등과 함께 수집한 대대로 전해오는 민간 경험 방약이기 때문일 것이다.

① 「神效名方」

현존 판본의 권15에 해당하며 273개의 방이 수록되어 있고 「世傳神效名方」, 「張氏經驗方」이라고도 불린다. 기존의 연구자들은 이 권을 張氏의 저작이 아닌 후인이 덧붙인 것으로 보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유문사친』의 내부적인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유문사친』의 내용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張氏의 저작으로 생각된다.

「治病百法」에 열거된 治方이 「신효명방」에서도 나타난다. 권4·7의 解利傷寒에서 사용한 '不臥散', '導引取汗法', '飮水揉散法'은 모두 「신효명방」의 권4·42 '風蛀牙痛巴豆熏療方'에도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神效名方·二』의 '治牙痛' 第五方과 동일하다.

「삼법육문」에 수록된 처방이 「신효명방」에도 같은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심지어 「신효명방」에서 발전하고 변화한 방제들도 있다. 예를 들면 권12 「삼법육문」 가운데 下劑의 '牛黃白朮丸'과 獨治於內의 '當歸散' 두 처방, 暑門의 '石膏湯', 獨治於外門의 '青金散', '撥毒散', '枯瘤方'과 '小黃膏', '風門香芎散' 등은 모두 「신효명방」에서도 나타난다.

권12의 '當歸散'은 원래 「신효명방」의 "治婦人產後虛弱和血通經方"[69]에 기원한 것으로 張氏가 일찍이 血崩치료에 운용하던 처방인데(권6·58), 임상에서 속효를 경험한 후에 '當歸散'이라 명명하여 권12에 수록해 놓은 것이다. 『神效名方·14』의 "治諸風疥癬及癩方"[70] 역시 '浮萍散'이라는 이름으로 권12의 汗劑에 수록되었다. 따라서 「신효명방」은 「삼법육문」보다 앞서서 편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신효명방」은 『유문사친』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世傳神效名方」, 「張氏經驗方」 등의 이름은 이 方集이 張氏家傳方, 世傳驗方, 秘方 및 張氏가 만들어 치병한 처방들을 수록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3) 常仲明 보유 내용

李濂의 『醫史』에서 "…… 『儒門事親』 …… 是書凡十四卷. 蓋子和草創之, 幾潤色之, 而常仲明有庶其遺, 爲「治法心要」 …… "[71]이라 한 것에 따르면, 「治法心要」는 常仲明에 의해 附入된 것임이 드러난다. 권14의 주요 내용은 「扁鵲華佗察聲色定死生決要」, 「診百病死生決」, 「病機」이다.

① 「治法心要」

일명 「扁華生死訣」이라고도 하며 현재 통용되는 판본의 권14에 해당한다. 그 내용이 난잡하여 『醫方類聚』에서는 이를 「雜記九門」에 귀속시켰고, 李濂은 『醫史』에서 "常仲明又摭其遺, 爲治法必要"[72]라 하였다. 따라서 이 권은 여러 권이 이미 책으로 만들어져 나머지 자료들과 분리되었던 것을 常仲明이 모아 편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치법심요」 가운데 「扁鵲華佗察聲色定死生訣要」는 『千金要方』 권28 「扁鵲華佗察聲色要訣第10」과 일치하고, 「診百病死生訣要」는 『千金要方』 권28 「診百病死生訣要第15」, 『脈經』 「診百病生死要訣第7」과 일치하는데, 이는 張氏가 前人들의 의서에서 발췌하여 제자들을 가르치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標本運氣歌', '十二經水火分治法'의 두 가결은 張氏가 운기학설의 '標本中氣'의 이론에 대해 상세히 개괄한 것으로, 그가 여기에서 제시한 '標本中氣'의 '從火從濕'이론은 전인이 밝히지 못한 것을 밝혔으며 또한 이것을 攻邪三法의 임상운용에 지침으로 삼았다. 明·張介賓은 이러한 관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病機', '治病', '六陳', '十八反', '運氣歌', '五不及', '辨病人生死', '四因' 등의 가결은 『내경』의 요지와 왕

69)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5.

70)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1.

71)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張子和醫學學術思想研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6.

72) 盧國鋼 著. 儒門事親研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23.

빙 주를 귀납시켜 만든 것이거나 의학을 가르치기 위한 구결이다. 어떤 것은 다른 책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고, 어떤 것은 前人들로부터 口傳되던 것이며, 어떤 것은 張氏 스스로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五苦六辛'의 내용은 권2·12의 내용과 동일하며 常仲明 등이 기록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十八反'으로 이는 오늘날 유행하는 十八反歌과 완전히 같다. 고찰에 따르면 최초로 十八反藥物이 나타난 것은 『本草經集注』이고, 『千金要方』,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綱目』 등을 거쳐 줄곧 오늘날까지 유전되었다. 그러나 十八反藥物이 집중적으로 기재된 것은 『太平聖惠方』이 먼저이고 최초로 '十八反'을 개괄하여 十八反歌로 만든 것은 「治法心要」의 '十八反'이 기원이 되었다

「雜記九門」의 "令門人欒景先下藥, 景先初學"[73]이라는 내용과 『유문사친』 諸卷에서 나타난 증거들로 판단해 보면 「治法心要」는 張氏가 欒景先에게 주어 편찬하도록 한 학습교재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4) 麻知幾와 후인의 수집과 보충

李濂의 『醫史』와 『醫籍考』에 『儒門事親』이 모두 실려 있으며 14권이다. 『의방류취』의 각 證門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역시 14권으로 오늘날 보이는 판본 중 『유문사친』 권13의 「삼소론」이 빠져있다. 「三消論」 線溪野老의 「跋語」에서 "三消之論, 劉河間之所作也, 因麻徵君寓汴梁, 暇日訪先生後裔 …… 求先生平昔所著遺書, 乃出「三消論」, 『氣宜病機』二書未傳於世者, 又多不全, 止取「三消論」, 於卷首增寫『六位』, 『髒象』二圖, 其餘未遑潤色, 即付友人穆子昭 …… 餘從子昭授得一本, 後值兵火, 遂失其傳, 偶於鄉人霍承君祥處復見其文, 然傳寫甚誤, 但依方而錄之. 以付後之學者, 詳爲刊正雲. 時甲辰年冬至日"[74](1244년)이라 하여, 「삼소론」이 간행되기까지의 전말을 잘 말해주고 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유문사친』 권13의 「삼소론」의 편명 아래에 "因在前此書未傳於世, 恐爲沉沒, 故刊而行之."[75]라 적혀있어 麻知幾가 「三消論」을 수집하여 책 일부를 윤색하였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張氏와 마지기가 사망한 전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간행되지 못하여 민간에 묻혀있었다. 『醫籍考』에 기재된 내용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 "…… 『儒門事親』 …… 惜其眞本爲徵君藏於山中, 不可複見, 今刊行者, 尚爲錯亂疑闕 …… 或失其眞 …… 異時有好事者, 購得眞本, 重刊而行之 …… 則子和不死矣"[76], "…… 將行於世, 會子和, 知幾相繼死, 迄今其書存焉"[77]이라 하였다.

현존하는 『儒門事親』의 최초 간행일은 元·中統(원 세조의 연호 1260-1264) 3년(즉 宋 景定3年, 1262년)으로 이 때는 張氏와 마지기가 사망한지 삼십여 년이 지난 후였다. 이때의 『유문사친』은 14卷本으로 「삼소론」이 포함되지 않았다. 明(嘉靖 20년 1541년)에 이르러서 邵輔(伯輝)가 元代 刊本을 토대로 개정하여 간행하였고 여기에 「삼소론」을 보충하여 15권이 되었다. 후에 『醫統正脈全書』가 다시 간행됨으로써 널리 전파되었다.

「삼소론」은 劉河間의 저작이다. 劉氏는 火熱論을 주장하였고 張氏는 劉氏를 따라 사숙하여 "其法宗劉守眞, 用要多寒凉"[78]하였다. 張氏는 劉河間 학술의 충실한 계승자이고 실천자이다. 따라서 마지기는 「삼소론」을 수집함으로써, 후대인들은 「삼소론」을 『유문사친』에 보완하여 넣음으로써 張氏와 劉河間의 사승관계를 반영하였다.

① 「三消論」

현재 통용되는 판본의 권13에 해당한다. 이는 아직 간행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하간의 遺著로 마지기가 劉河間의 후인들이 살고 있던 汴梁을 방문하여 구한 후 "于卷首增寫六位髒象二圖"[79]하였다. 그 후 나

73)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1.

74)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7.

75)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1.

76)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卷15·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56.

77)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卷15·方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57.

78) 裘沛然 主編. 中國醫籍考·卷50·方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79)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

머지는 개정할 여유가 없어서 河間의 문하생 穆大黃의 후인인 穆子昭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汴梁에서 관직을 구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해 처지가 매우 곤궁하였는데 이를 간행하여 잠시 곤경을 면하였다고 한다. 錦溪野老가 어떤 인연으로 "從子昭授得一本"[80]하였기 때문에 그 전말을 알고 있었다. 그 시기는 麻知幾가 金·哀宗의 특사를 받아 "太常寺太祝, 權博士, 俄遷應奉翰林文字"[81]할 때로 대략 金·正大 초기인 1225년 전후에 해당한다.

子昭의 初刻本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의 피해를 입어 널리 유전되지 못하였다. 錦溪野老의 판본 또한 전쟁 때 망실되었고, 십여 년 후에 "鄕人霍承司君祥處, 復見其文, 然傳寫甚誤"[82]하였다. 새로이 발견된 것은 한 권의 필사본 이었다. 금계노인은 이전의 것에 의거하여 다시 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삼소론」의 이차 간행본으로 그 시기는 1244년 말에[83] 해당한다. 이때는 元이 이미 金을 멸망시킨 후이며 麻氏가 사망한지 12년이 흐른 다음이었다. 이차 간행본에는 증보되었던 두 개의 도표(「難素撮要究治識病用藥圖」와 「天地六位臟象圖」)는 이미 「촬요도」로 옮겨져 있었고, '悟大師經驗方', '此方令子和辨過, 雲是重劑可用'과 같은 주석의 내용이 첨부되어 있었다.

張氏의 字를 직접 부르는 것은 제자들의 어투가 아니므로 마지기가 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삼소론」이 戰禍를 거치면서도 소실되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은 마지기가 수집을 하였고, 錦溪野老의 2차 간행본이 『유문사친』에 補入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明代 李濂의 『醫史』에는 '『儒門事親』14卷'이라 한 것으로 보아 「삼소론」이 明初에 『유문사친』에 수용되면서 현재 통용되는 15卷本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結 論

『儒門事親』은 張子和의 학술사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저작으로 본문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되었다. 현재 통용되는 板本은 여러 개의 서적이 한데 묶여져 만들어진 것으로 모두 10종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원래 『유문사친』이라는 書名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권 1, 2, 3에 해당하며, 「治病百法」은 권4, 5, 「十形三療」는 권6, 7, 8, 「雜記九門」은 권9, 「撮要圖」는 권10, 「治法雜論」은 권11, 「三法六門」은 권12, 「三消論」은 권13, 「治法心要」는 권14, 「神效名方」은 권15에 해당한다.

이처럼 현재의 『유문사친』이 여러 저작들의 집합체인 만큼 문체가 모두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각 권의 저자가 누구인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원래의 『유문사친』에 해당하는 권1, 2, 3은 대부분이 張氏가 저술하여 麻知幾가 윤색을 하였다는 것, 「삼소론」이 마지기에 의해 수집되고 후인들에 의해 補入 되었다는 것, 어떤 형식으로든 마지기뿐만 아니라 常仲明, 欒企 등의 제자들이 편찬에 참여하였다는 것 등은 일반적으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비록 각 권의 저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더라도 이 책의 내용들이 張氏의 학술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參考文獻

<논문>

1. 姜春華. 張子和考. 上海中醫藥雜誌. 上海中醫藥大學·上海市中醫藥學會. 1985. (2).
2. 金基郁, 朴炫局. 朱丹溪 醫學思想의 背景에 關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8(4). pp.1-14.

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7.

80)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7.

81) 景仁文化社 編. 金史·列傳六十四.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2740.

82)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7.

83)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儒門事親.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7. "時甲辰年冬至日"을 말한다.

3. 金基郁, 朴炫局. 素問玄機原病式의 病機理論에 關한 硏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05. 17(3). pp.42-61.
4. 宋隆燮, 洪元植. 張從政의 生涯와 醫學思想. 慶熙大學校論文集. 1986. (9). p.320.

<단행본>
1. 景仁文化社 編. 金史.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2526, 2740.
2. 具炳壽, 李東垣 譯. 儒門事親.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2001. p.193. pp.201-202.
3. 裘沛然 主編. 中國醫籍考·卷50·方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4. 丹波元簡 編. 醫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883. p.25.
5. 丹波元胤 編.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p.656-658.
6. 北京愛如生數字化技術硏究中心 編纂. 醫史. 北京. 黃山書社. 2005. p.35.
7.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張子和醫學學術思想硏究.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195-196.
8. 蕭國鋼 著. 儒門事親硏究.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8. p.11, 21, 23, 25, 26, 27.
9. 李時珍 著. 本草綱目·卷5·水部. 北京. 華夏出版社. 1998. p.284.
10. 王雲五 主持. 四庫全書總目. 서울. 法仁文化社 影印本. 1964. p.856.
11. 張元素 原著. 任應秋 点校. 醫學啓源.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8.
12. 張子和 著. 徐江雁, 許振國 主編. 張子和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 63, 64, 65, 87, 88, 98, 101, 110, 111, 115, 123, 151, 157, 171, 175, 181, 195, 196. pp.62-63, 111-112, 115-120, 120-121, 195-196.
13. 丁光迪 著. 東垣學術論文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1-24.
14. 蔡陸仙 篇. 中國醫學匯海. 서울. 成輔社. 1976. pp.76-77.